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금년 겨울철, 구제역 발생 가능성 높아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NSP항체가 상당수 검출되고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행객 등을 통해 외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금년 겨울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NSP항체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특정 시점에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현재는 체내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항체양성축은 이동제한 후 도축장에서의 도태만 허용

지난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구제역 재발방지에 모든 부처가 협조할 것”을 지시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

종 상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4.20에 경북 영천의 돼지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그동안 12건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가지 측면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11.7~9월중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실시(3,507농가, 17천두)한 결과 항체형성율이 소는 98.7%, 돼지는 70.2%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돼지를 사육하는 21농가와 소 3농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항체형성율이 낮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황이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항체형성율이 소 80% 이하, 돼지는 면역 특이성을 감안할 때 항체형성율이 소에 비해 낮아 60%이하임

* 1차 백신접종시 소는 95~100%, 돼지는 60~80% 수준이 정상임

② 아울러 ‘11.1~8월중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경력을 조사하는 NSP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2,008농가 132,909두 중에서 153농가 1,005두가 이전에 구제역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항체양성 가축은 비록 현재는 몸안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농장내·외부와 자연환경에서는 아직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독·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등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재발이 우려되

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경검역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전국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생시 발생농장의 감염축만 살처분하게 된다.

* '11년 14개 발생국 중 중국(9.30), 대만(7.26), 북한(3.25) 등 주변국에서 지속발생

참고로 대만의 경우 '97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03년에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09년부터 간헐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거나 예방접종시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구제역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물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도 최대 80%까지 삭감하고, 농가의 방역 소홀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형성율이 낮아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정부 정책자금 및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12년부터는 방역을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몰보상금도 전체금액의 20%를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방역 소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작년과 같은 구제역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6일 AI·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농림수산검사검사본부·지자체 및 관련단체 및 협회에도 상황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내 가축방역기관의 BSE 진단능력 신뢰도 높은 것으로 평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에서는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BSE(광우병) 진단기술력 강화를 위한 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BSE 검사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BSE 진단기술 훈련은 검역검사본부 해외전염병과 BSE차폐실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시료 채취요령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BSE 검사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시료를 이용한 평가에서 모든 검사요원은 일치된 BSE 검사결과를 나타내어 국내 가축방역기관의 BSE 진단

단능력은 표준화되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검역검사본부 해외전염병과 조인수 과장은 “매년 이러한 훈련 및 평가를 바탕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아 작년 5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올해에도 동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BSE 예찰에 있어서 검역검사본부의 중요한 역할은 지속적으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BSE 검사결과의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BSE 검사를 실시한 1996년 이후 9월말 현재까지 총 10만 8천두의 소를 대상으로 BSE검사를 실시하였으나, BSE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자율적, 창의적 성과문화 확산 노력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월 24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4회 성과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 직원 성과계약제’를 운영하고, 올해에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 책임운영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진청의 조직성과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 정량성과(상반기): (‘09)38,039건→

(‘10)43,482(+14.3%)→(‘11) 45,614(+4.9%)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다선정 :

(‘09) 7건 → (‘10)11 → (‘11) 10

올해에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계약과 평가방식을 청 일괄 관리에서 부서별 책임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구성원의 눈 높이에서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창의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서별 자율운영 범위를 40%에서 60%로 대폭 확대하고, 공통지표의 반영 비율은 20% 축소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융합과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정비(53%)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거꾸로 평가’하는 지표도 도입했다. *거꾸로 평가 : 본청(각 과) 업무지원에 대해 소속기관의 관련 직원이 각각 평가 직무성과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5단계의 사전·사후검증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오류는 제로 수준에 가깝게 대폭 줄어들었다.

성과관리 전문관 제도와 성과 향상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통해 전략적인 성과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문화 구축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고, 황당무계 세미나와 성과우수자 특별 승급 등을 통해 창의적인 성과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또한,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구성원 관점에서 성과문화수준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해 구성원의 성과수준을 진단하고, 애로사항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연계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전략적 성과관리 매뉴얼인 ‘성과향상 길

라잡이'를 발간하기도 했다.

실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도 “이번 성과평가 책임운영제 실시로 업무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업무 효율성도 좋아졌다”며 성과관리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촌진흥청 임재암 기획조정관은 “내년까지 성과문화 진단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방안을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하여 창의적인 성과문화 롤모델(Role Model)을 정립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신임 사장에 김재수 前 농식품부 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신임 사장에 김재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김재수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첫 발을 디딘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국장, 주미 대사관 농무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농촌진흥청장과 농식품부 제1차관을 지냈다.

김 사장은 기획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많은 평을 받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 유통 및 식품 관련 분야에 주로 근무하면서(시장과장, 유통과장, 유통국장)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유통·식품전문가로서 수차례 걸쳐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농식품부 재직 당시 119조원의 예산을 세워 농어촌발전 대책을 수립하였고,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과

UR/WTO/DDA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어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농안법 파동과 한중 마늘협상,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위기관리 대응능력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현장감각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사장은 농식품부 시절 aT를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전문기관으로 정립하고 식품산업육성과 해외 aT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식품 수출확대와 유통활성화에 열정을 쏟아왔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곡물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서는데 aT와 인연을 맺어왔다.

김 사장은 “농산물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의 필요성이 날이 증대되고 있고, FTA, DDA 등 세계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aT의 사업과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무관 시절부터 aT의 업무를 담당해온 경험을 살려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aT의 기능을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10월 11일 기준원 9층 회의실에서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단체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무,



부회장, 사무총장 12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준원의 역할 및 HACCP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 단체 간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중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임경애 사무총장은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만 보장할 수 있다면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구매의사가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축산기업중앙회 한수현 전무, 녹색소비자연대 허혜연 팀장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HACCP이 활성화 되려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최종단계인 유통단계 식육판매업소의 HACCP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참석해주신 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물HACCP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대상 홍보와 현장의 HACCP운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농협중앙회

농협, 겨울철 AI 방역활동에 총력

작년 첫 발생지인 충남 천안에서 27일 방역 시연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AI(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0월 27일 대전충남양계농협 관내인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양계농장(농장주 신원섭)에서 AI 예방 가상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AI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가금농가의 AI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농가의 자율적인 소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성우 농협축산대표이사를 비롯한 충남지역본부장, 대전충남양계농협 등 축협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양계농장에 대한 소독시연을 펼친다.

이날 행사에서 남성우 농협축산대표이사는 “작년 12월 29일 충남 천안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만큼 올해는 농가 소독 등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철새 등 야생 조류의 농장접근을 차단하고, 철새도래지 및 텃새 서식지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10월 12일 악성 가축질병 재발방지 및 초동방역 체계 유지를 위한 AI 방역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전국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하고 의심 가축 신고체계 확립 등 방역활동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